

CJ그룹, '문화' 꿈꾸는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1200여명 선발해 멘토단과 동아리 활동 6개 분야에서 나영석, 신승훈 등 멘토단 참여

2020년 새해를 맞아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월 11~12일 각각 CGV용산과 동대문 DDP에서 'CJ 도너스캠프청소년 문화 동아리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를 꿈꾸는 청소년, CJ라는 꿈지기를 만나다'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 학생과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CJ 임직원·업계 전문가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CJ도너스캠프청소년 문화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문화교육을 통해 창의력·인성 등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중 음악 부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랩으로 합창 공연을 펼치고 있다. /CJ그룹

을 키우고, 미래유망분야 중 하나인 문화산업에 진로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CJ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공모로 선발된 12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등 6개 분

야에서 나영석, 윤제균, 신승훈, 김문정, 김병필, 한해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CJ 임직원 포함 업계 전문가, 대학생 봉사단 등 총 220명의 멘토단과 함께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LG헬로비전 AI로봇·드론 체험 '과학캠프' 개최

LG헬로비전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3회 꿈마을 과학캠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평대영학교에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진행됐다.

'ICT기술 위에서 뛰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은 AI, 로봇, 드론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드론 축구 경기 ▲업사이클링 로봇 만들기 ▲오조봇 코딩수업 등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축구 경기'가 인기를 끌었다. 드론 조종법을 배운 아이들은 실제 축구 경기를 하듯 드론을 조종하며 경기를 펼쳤다. 또 '업사이클링 로봇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의 기본적인 구조와



꿈마을과학캠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코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LG헬로비전

작동원리를 익히고,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되새겼다.

/김나인 기자 silkni@

'친환경소재' 개발해야



기지 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친환경이 유통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업체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를 살펴보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정례식장에서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로드맵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계별 계획(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등의 방안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마련됐지만 1회용품 규제 대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용품을 금지하기보다 친환경 소재나 대체 재질 용기의 사용 등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자원의 남용억제와 폐기물 원천 감량이란 근본적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회용품 사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문제에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친환경 소재 개발 장려를 통해 친환경 소재가 개발돼 시중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parkiu785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48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6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2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84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 소** 37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환경을 바꿔보자. 49년생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신경 써라. 61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73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0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62년생 망설임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결단 필요. 74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둬라. 86년생 기분이 상해도 이해.
- 토끼** 3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51년생 맘에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63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면 일을 그르친다. 7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7년생 주변이 수상하니 말조심.
- 말** 4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64년생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76년생 먼저 주면 다시 큰 것을 얻는다. 88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 뱀** 41년생 모란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해야. 53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65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77년생 날씨가 따뜻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89년생 오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 말** 42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룬다. 54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않으니 보람이 있다. 6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78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9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 양** 43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55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7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91년생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 원숭이** 4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옷들이 일이 잘 풀린다. 56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 68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나 그래도 양보를 해 보라. 80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설득력이다. 92년생 익숙해져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 닭** 45년생 우물거스에서 송능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57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69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81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93년생 영업은 이익이다.
- 개** 46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는 가족의 원망을 듣는다. 58년생 무심결에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70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당신의 격을 높여준다. 82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94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것.
- 돼지** 47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벅찬 하루. 59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에서 희망이 보인다. 71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83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95년생 뒷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나서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조조의 선택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맞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회는 적고 효용은 높여야 하다 보니 선택은 당연히 어려운 명제가 된다.

결정장애가 생기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최적 정의 효용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기에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결정의 때를 놓치면 실리와 명분도 동시에 잃게 된다.

계류(鷄肋)이라는 비유가 있다. 먹자니 불편하고 버리자니 아까운 경우를 일컫는 비유다. 조조가 유비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지지부진한 승패 속에서 진퇴 여부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저녁 식사로 닭국을 먹고 있을 때 장수 하후돈이 들어와 오늘 밤 암호를 무엇으로 할지를 묻자 조조는 무심코 '계류!'이라고 했다.

하후돈은 군사들에게 '계류'이라고 암호를 명령 전달했다. 모두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때 장수 양수가 웃으며 말했다. "계류라면 닭갈비인데 닭갈비는 버리는 게 아까우나 먹을 것이 없으니 승상께서는 한중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득이 없으니 곧 철수할 생각이신 거요. 그러니 모두 짐부터 꾸리시오."

이를 보고 받은 조조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속마음을 환히 읽은 양수를 살려 두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양수는 군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목숨을 잃었고 조조는 군대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다.

조조는 처음에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귀로에 있었다. 생각을 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양수에게 마음을 들켜 자 자신의 마음을 읽어버린 신하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양수를 죽이고 깔끔히 철수를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4	7	6				
2		1	8	9	5			
3	1	8			2	4	7	
	2			5				
7	9	5		3	6	1		
	4		8	7	1	2		
		1	9	4	8			
		6		2				

				3	6			
			9		1			
				1			4	
			5	7		6		9
	5		8			2		
	4			9				
7	3		2					
6				1		4	2	
		2	6				1	

스도쿠 정답								
5	1	7	2	9	4	8	6	
9	8	7	5	6	1	3	2	
2	6	1	8	9	7	5	4	
1	9	4	8	7	2	5	6	
6	8	5	2	1	3	9	7	
4	7	2	9	6	5	8	1	
7	5	1	6	8	1	2	9	
8	9	2	3	7	6	5	4	
3	6	1	5	9	4	7	8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7호